

韓國에서의 歐陽修 산문 전파와 평가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를 중심으로 —

黃 一 權**

<目次>

I. 序論	2. 산문 작품에 대한 평가
II. 歐陽修 산문의 전파	3. 표현기교와 예술적
III. 歐陽修 산문에 대한 평가의 제 양상	특징에 대한 평가
1. 文體改革에 대한 평가	IV. 結論

I. 序論

歐陽修(1007~1072)는 北宋代 인물로 그가 생활한 시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초기에 해당한다. 그는 문학가, 정치가, 역사가, 금석문 수집가로 중국 문화사상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특히, 문학영역에서 이룬 성취로 인해 생존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로 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人口에 회자되고 세인들의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가 생활했던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월남 등 동아시아 한문 문화권에서 공히 나타나니, 그의 성취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겠다.

구양수가 남긴 업적 가운데 그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L0016)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조교수

장 두드러진 것은 문학영역에서의 성취라고 생각되며, 문학 가운데에서도 산문영역의 성취를 최고로 칠 수 있을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

산문영역에서 그의 성취에 대해 우리나라 역대 문인들이 문집에서 다각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기록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나라에 미친 구양수 산문의 영향은 적지 않다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양수의 산문영역에 있어서의 성취가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평가되었는지를 대표적인 평가 사례를 적출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선조들의 중국산문에 대한 연구의 일면을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II. 歐陽修 산문의 전파

구양수의 산문 작품을 포함한 그의 저작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역대 문헌에 구양수 작품이 인용된 것을 통해 유입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가장 먼저 구양수 작품을 인용하고 있는 문헌은 金富軾(1075~1151)의 《三國史記》이다. 《三國史記》에서는 구양수의 《新五代史》를 1차례¹⁾ 인용하고 있는데, 《三國史記》의 완성시기가 1145년이니 《新五代史》는 적어도 1145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양수 문집은 이보다 뒤에 전래된 것으로 확인된다. 李仁老(1152~1220)는 《破閑集》(卷下)에서 구양수의 <石鼓文>²⁾

1) 《三國史記·新羅本紀》卷第十의 論贊에서 《新五代史·梁本紀二》 卷二의 史論를 인용하여: “論曰: 歐陽子之論曰‘魯桓公弑隱公而自立者, 宣公弑子赤而自立者, 鄭厲公逐世子忽而自立者, 衛公孫剽逐其君衍而自立者, 聖人於春秋, 皆不絕其爲君. 各傳其實, 而使後世信之, 則四君之罪不可得而掩耳, 則人之爲惡, 庶乎其息矣’. 羅之彥升弑哀莊而即位, 金明弑僖康而即位, 衛微弑閔哀而即位. 今皆書其實, 亦春秋之志也.”라고 하고 있다.

의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³⁾, 같은 책에서 《居士集》 卷三에 실린 詩 <重讀徂徠集>의 두 구절⁴⁾을 인용하고 있다. 동시대 인물인 崔滋(1188~1260)의 《補閑集》에는 구양수의 필기소설인 《歸田錄》에 대해 칭송하고 있고⁵⁾, 같은 책에 “문순공(이규보, 생졸년 1168~1241)이 이르기를 ‘내가 《구양공집》을 처음 보고는 그 양이 풍부함을 좋아하였고, 두 번째 보고는 멋진 곳 볼 수 있었으며, 세 번째 보고는 두 손 모아 탄복하였다.”(文順公曰: ‘餘初見歐陽公集, 愛其富, 再見得佳處, 至於三拱手嘆服’.)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늦어도 1214년 이전에 이미 《居士集》·《歸田錄》·《集古錄跋尾》 등이 포함된 구양수 문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고, “愛其富”라는 문구를 통해 볼 때 그 분량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적어도 최자의 卒年인 1260년 이전에 이미 구양수의 문집이 文士들 사이에 읽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林惟正(生卒未詳)이 1159~1214까지 편찬한 《百家衣集》에는 약간의 출입이 있는 구절도 있으나 《居士外集》에 실려 있는 18편의 詩文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읽혀졌던 구양수문집은 南宋 周必大(1126~1204)편집한 《歐陽文忠公全集》 153권으로 볼 수 있겠다.

이로써 구양수의 역사저작과 문학작품 散文, 詩, 詞가 모두 고려 중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문인들에게 읽혀졌으리라 짐작되는데, “古文提唱의 功을 益齋에 歸하고 있으나 그의 前에 歐蘇韓柳가 이미 많이 流行한 것”⁶⁾이라고 한 金台俊의 말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 2) 《集古錄跋尾》 卷一, 《歐陽修全集》(世界書局本影印), 中國書店, 1986(제1판)
- 3) “石鼓在岐陽孔子廟中, 自周至唐二千載. 詩書所傳, 及諸史百子中固無所傳, 且韋韓二公皆博古者, 何以即謂周宣王鼓, 著於歌詞剖析無遺, 歐陽子亦以爲有三疑焉. 昨在書樓, 偶讀其文.”
- 4) “文章自有一定之價, 富不爲之減. 故歐陽永叔雲: ‘後世苟不公, 至今無聖賢’, 陽世材, 才士也”.
- 5) 卷下第四十九話: “歐陽公作《歸田錄》, 以肇言爲法, 此古今儒者撰述之常也.”
- 6) 金台俊 著, 金性彥 校註, 《校註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년(초판) 134-

다음으로 구양수 산문의 전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시기에 작가의 작품이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방법으로 목판이나 금속판 刻字 그리고 활자를 통한 인쇄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된다. 고려 중기 《歐陽文忠公全集》의 우리나라 유입을 통해 구양수의 작품이 많은 문사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 역시 활자를 통한 인쇄가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에서 구양수 산문이 간행된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산문 작품을 포함한 구양수의 작품이 함께 간행된 경우, 구양수의 산문 작품만 단독으로 간행된 경우, 성향이 유사한 몇몇 작가의 산문작품과 함께 편찬된 경우, 다수 작가의 작품과 함께 선집된 경우이다.

먼저 산문 작품을 포함한 구양수의 작품이 간행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구양수 문집의 간행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양수 문집의 간행에 대해 김춘란은 鞏本棟의 <宋人撰述流傳麗、鮮兩朝考>라는 논문에서 《歐陽文忠公全集》 五十卷에 대해 서술하면서 “島田翰《古文舊書考》卷四元明清韓刊本考著錄明洪武丙寅刊本”⁷⁾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고려말에 이미 구양수 문집이 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⁸⁾ 그런데 이는 김춘란이 島田翰 《古文舊書考》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鞏本棟의 논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元明清韓刊本考>의 의미를 “元·明·淸대 서적의 한국에서의 간행 고찰”이라 이해하여 구양수 문집의 간행시기를 단정 지은 데 따른 오류로 보여진다. 실제 島田翰의 《古

135쪽 참조.

7) 《域外漢籍研究輯刊》 第一輯, 中華書局, 2005 367쪽 참조.

8) “구양수 개인문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처음 간행한 기록은 1471년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시기 이전에 구양수 문집은 이미 간행된 적이 있는데, 아마 민간에서 판각된 것 같다. 島田翰이 쓴 《古文舊書考》 卷四의 <元明清韓刊本考>에는 고려 말(1386년)에 간행된 明代의 洪武 丙寅刊本을 著錄하고 있는데, 50권이라는 권수를 보아 周必大本은 아니고 그전 에 더 일찍이 나온 판본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 아마도 구양수 개인 문집은 그를 숭상하는 불교·유학자들에 의해 간행되지 않았나 싶다.”(김춘란, 《歐陽修 산문의 한국 전래와 수용》(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7) 13쪽-14쪽.)

文舊書考》에는 “歐陽文忠公集五十卷”이라는 제목 아래 우측에 작은 글씨로 “洪武丙寅刊本蔡玘刻本宋槧百五十八卷本”이라고 적혀 있다.⁹⁾ 즉, 이는 고려때 간행된 구양수 문집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대 홍무 연간, 구체적으로 말하면 丙寅年(1386년)에 永豐 縣令 蔡玘가 목판본으로 간행한 《居士集》 五十卷¹⁰⁾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말에 간행되었다는 주장은 착오로 판단된다.

또 구양수 문집의 간행과 관련하여 鞏本棟 교수는 《歐陽文忠公集》 五十卷 항목에서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판각하였다”(朝鮮時期又多次翻刻. 《增補文獻備考》 卷二四二《藝文考》一)고 하고는 “(조선)성종 2년 왕형공집과 구양공집을 사용하여 집자하고 주조하였는데, 글자체가 경자자보다 작지만 더욱 정교하고, 신묘자라 하였다”(朝鮮)成宗二年(明明宗成化七年, 1471), 用王荊公、歐陽公集字鑄之, 字體小於庚子字而尤精, 名曰辛卯字.)¹¹⁾ 하였는데,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여러 차례 복간한 예로 《增補文獻備考》 卷二四二《藝文考》一의 기록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1471년에 판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김춘란도 윤병태의 주장¹²⁾을 근거로 구양수 문집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처음 간행한 시기를 成宗대로 보면서¹³⁾, 황일권도 《歐陽脩散文研究》¹⁴⁾에서 구양수 개인문집의 첫 간행시기를 성종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¹⁵⁾, 이는 모두

9) (日)島田翰, 《漢籍善本考》,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년(제1판) 609-622쪽 참조. 이 책의 원제는 <出版說明>에서도 밝혀 놓았듯이 《古文舊書考》로, 독자가 찾아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 서명을 바꾸어 출판한 것이다.

10) <書居士外集後>, 《皇明文衡》 卷四十八: “惟所校《居士集》五十卷, 洪武初永豐縣令蔡玘已爲之鏤板, 而建寧書坊又爲之傳刻, 則此《外集》亦當與之並行也.”

11) <宋人撰述流傳麗、鮮兩朝考>, (《域外漢籍研究輯刊》 第一輯, 中華書局, 2005, 366-367쪽)

12)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 冊》, 범우사, 1991, 47쪽 참조.

13) 김춘란, 앞의 논문 16-17쪽 참조.

14) 《朝鮮後期 活字와 冊》, 범우사, 1991, 17쪽 참조.

15) 김춘란, 앞의 논문 17쪽 참조.

사실과 다르다. 첫째, 성종 2년에는 구양수 문집이 간행된 것이 아니고, “歐陽公集”은 단지 “辛卯字”를 주조하기 위한 字本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성종 2년에 《歐陽文忠公集》 五十卷이 간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황일권의 《歐陽脩散文研究》에서는 구양수 문집이 처음 간행된 시기를 中宗 25년이라고 기술하고 있지 성종조로 기술하고 있다.¹⁶⁾

구양수 문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것은 중종 25년(1530년)이다.¹⁷⁾ 구양수 문집이 간행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다.

먼저, 중종 10년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근사(金謹思) 등이 상소하여 홍문관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서적이 드물고 비치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아 《歐陽公集》을 포함한 홍문관에 1권 밖에 없는 책은 없어지거나 잃어버린 뒤에는 다시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는, 인쇄하여 널리 반포할 것을 중종께 주청하자 도감을 따로 설치하여 精하게 박아서 반포하라고 전교하였다.¹⁸⁾ 이를 후에 예조(禮曹)에서 전지(傳旨)하여 도감(都監)을 따로 설치하고 부지런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을 가려서 당상(堂上)과 낭관(郎官)으로 삼아서 홍문관(弘文館)에 간직한 《歐陽文忠公集》을 포함한 서적을 발간하도록 하였다.¹⁹⁾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종 25년에 비로소 《歐陽文忠公集》이 印出되었고²⁰⁾, 이후 중종과 明宗 연간에 복간된 적이 있다.²¹⁾ 다만, 김춘란이 주석에서 이 책을 “《歐陽文忠公集》, 歐陽

16) 黃一權, 《歐陽脩散文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207쪽 참조.

17)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4쪽 참조.

18) 《中宗實錄》 23권, 10년 11월 2일 2번째 기사.

19) 《中宗實錄》 23권, 10년 4일 4번째 기사.

20) 김학주, 위의 책 4쪽 참조. 중종 10년(1515)~25년(1530) 사이에 간행된 구양수 문집은 없으며, 간행되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다.

21) 金鍾門, 《韓國古印刷技術史》, 探究堂, 1974, 149쪽에는 世宗 16년(1434)에 주조한 甲寅字로 인출한 서목 가운데 中宗·明宗間에 인출한 《歐陽文忠公集》(檜淵書院藏)을 넣고 있고, 김학주, 위의 책 4쪽에도 復刊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김춘란의 위의 논문 18쪽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주석에 “《歐陽文忠公集》, 歐陽脩 著, 歐陽發 編定”이라고 쓰고 있다. 이는 모두 중종25년에 인출된 《歐陽文忠公集》을 복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修 著, 歐陽發 編定”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서 “歐陽發 編定”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판단하건대, 중종25년에 인출된 《歐陽文忠公集》은 구양수 전집이 아니라, 《居士集》 五十卷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구양수 문집이 활자로 인출됨으로써 이후 구양수의 산문은 기존의 필사 방식이나 중국에서 유입되어 읽혀지던 전파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더욱 폭넓게 많은 문사들에게 읽혀졌으리라 추측된다.

구양수 문집 전체를 간행한 것 외에 구양수의 산문만을 단독으로 가려 뽑은 《歐文抄》 二冊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韓文抄》, 《柳文抄》, 《蘇文抄》도 각각 二冊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선조가 韓柳歐蘇의 문장을 《文章宗範》으로 이름하여 인출하도록 하였지만, 《文章宗範》이라는 책이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각각으로 인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²²⁾

《歐蘇手簡》은 구양수와 소식의 서간문을 모아놓은 책으로, 太宗은 《歐蘇手簡》만을 옆에 두고서 다 읽었다는 기록이 있으며²³⁾, 世宗은 이 책을 천번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⁴⁾ 이후 선조 초기에 淸州, 洪州, 韓山, 穀山, 등에서 간행되었고²⁵⁾, 이외에 禮泉에서도 간행된 적이²⁶⁾ 있는 것으로 보아, 구양수 서간문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읽혀진 것으로 추측되며 구양수 산문의 전파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許均(1569~1618)은 구양수와 소식 산문 각각 68편과 72편 골라 《歐蘇文略》 八卷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당시 선조가 당송문 열독을 강조하고, 秦漢의 고문풍에 대한 개혁 의지가 담기고, 文弊를 지적하는 상소가 여러 차례 올려지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라 의미가 적지

22) 《宣祖實錄》 187卷, 38년 5월 27일(경자) 2번째 기사.

23) 《世宗實錄》 22卷, 5년 12월 23일(경오) 1번째 기사.

24) 이는 많이 읽었다는 의미인 바, “世宗曰: “予於諸書皆百讀, 但《楚詞》與《歐蘇手簡》, 三十遍而已。”라는 기록(《端宗實錄》 6卷, 1년 6월 13일(무술) 2번째기사)이 이를 뒷받침 한다.

25) 김춘란, 위의 논문 18쪽 참조.

26) 金鍾門, 위의 책 220쪽 참조.

않다.²⁷⁾ 이는 簡約함을 추구한 구양수 산문의 경향과 허균의 문장이 간결한 것²⁸⁾과도 일치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구양수의 산문이 포함된 《詳說古文眞寶大全》, 《文章軌範》, 《文章正宗》, 《唐宋八大家文抄》 등이 중국에서 유입되어 우리나라 문사들에게 널리 읽혀졌다. 그 밖에 《唐宋八子百選》은 당송팔가문 가운데 正祖가 직접 100편을 정선하여 편찬한 책으로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편찬하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영향력이 컸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인쇄되고, 과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하사된 적이 있는²⁹⁾ 등의 사실 통해 볼 때 구양수 산문의 독자층 확대와 이에 대한 다양한 평론의 출현에 큰 몫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III. 歐陽修 산문에 대한 평가의 제 양상

구양수 문집이 우리나라에서 유입되고 간행되고 편찬되는 과정을 통해 문사들은 구양수 산문을 읽은 후의 갖가지 형태의 평론을 내놓았다. 그리고 역사서에서도 구양수의 산문사상의 공적과 그의 일부 산문 작품에 대해 가치를 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구양수 산문에 대한 평가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1. 文體改革에 대한 평가

중국산문은 당말 오대에 와서 韓愈·柳宗元을 중심으로 진행된 唐代 古文運動을 계승한 黃甫湜·李翱 등의 고문가가 나왔지만, 창작에서의 한계

27) 《宣祖實錄》 39卷 26년 6월 17일 7번째 기사 / 43권 26년 10월 17일 3번째 기사 / 65권 28년 7월 12일 1번째 기사 / 65권 28년 7월 15일 2번째 기사 / 88권 30년 5월 27일 1번째 기사 / 193권 38년 11월 3일 1번째 기사 참조.

28) 車鎔柱, 《韓國漢文學史》, 景仁文化史, 1995(초판) 462쪽 참조.

29) 《正祖實錄》 29권 14년 3월 6일 1번째 기사.

로 宋代에 들어오면서 西崑體가 중심이 된 유포주의 문풍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구양수는 고문가인 尹洙·梅聖俞 등과 교류하면서 문단의 맹주로서 문풍개혁의 의지를 다져 왔다.

구양수는 北宋 고문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특히 嘉祐 2년(1057) 知貢舉로서 과거를 관장하면서, 화려하나 내용은 부실한 문장을 쓰는 응시자는 모두 낙방시킴으로써 소박하고 간명한 문장이 향후 문단의 주류 문체로 자리하게 한 공적은 중국 산문사상 기념비적 일이다. 이 사건은 그로부터 5·4시기에 이르기까지 산문이 문단을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공적은 우리나라에서 문체의 浮華함을 바로잡고자 시도한 시기마다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世宗祖 성균관 대사성(行成均館大司成) 황현(黃鉉) 등이 당시의 국학 입학생들이 辭賦에만 치중하고 科文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古人들의 문구를 抄集, 蹈襲하면서 經學 공부는 뒷전으로 하는 풍조를 비판하고는, 구양수의 문풍개혁이 宋代에 인재가 융성하게 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옛날 당나라의 이의산(李義山)과 송나라의 유자의(劉子儀) 등이 전적으로 문장만을 숭상하여 하나의 문체(文體)를 만들어 이루니, 당시 과거에 응시하던 선비 유기지(劉幾之)와 같은 무리들이 이를 서곤체(西崑體)라 이르며 높이 신봉하고 또 도습(蹈襲)하여, 송나라의 윤수(尹洙)·매성유(梅聖俞) 등이 그 문체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가우(嘉祐) 원년에 구양수(歐陽脩)가 지공거(知貢舉)로 된 후 이 서곤체의 비루(卑陋)함과 또 이를 본뜨는 자가 있는 것을 몹시 싫어하여 일체 이를 배격하였으니, 이것이 송대(宋代)에 인재가 융성하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³⁰⁾

당시 문과 문과 초장(文科初場)에 강론(講論)을 폐지하고 의의(疑義)를

30) 《世宗實錄》 49권, 12년 8월 22일 2번째 기사: “昔唐之李義山、宋之劉子儀專尙文辭，作爲一體，一時應學之士，有如劉幾之輩，謂之西崑體，而崇信蹈襲。宋之尹洙·梅聖俞欲變其體，而竟莫能就。至於嘉祐元年，(歐陽脩)[歐陽修]知貢舉，深惡西崑之體陋，而有蹈襲之者，一皆斥之，此宋朝人才之所由盛也。”

시험한 뒤로는 국학(國學)의 입학생들은 의의(疑義)와 표문(表文)·책문(策文)을 쓸 때 경서에 근거하지 않고 초집(抄集)한 데에 따르고, 고시관에게 요행을 바라는 풍습이 있었던 바, 인재를 가려뽑기 위해서는 구양수가 초집·도습하는 자들을 모두 낙제시키고 경서에 근거를 둔 자를 선발하였던 대로 행한다면, 문장을 짓는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그대로 도습하는 병통이 없게 할 수 있으니,³¹⁾ 불량한 풍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

연산군 때 헌납(獻納) 정환(鄭渙)이 문풍이 浮華하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청하면서 송대 문장이 典實해진 功을 구양수에게 돌리고 있다.

송(宋)나라 때의 선비들은 서곤체(西峴體)를 본받아 문사(文詞)가 어렵고 괴벽하였는데, 구양수(歐陽修)가 공거(貢舉)를 주관하면서 극력 배척하였으므로 송(宋)나라 때의 문장이 전실(典實)해졌던 것인데, 오늘날 문체가 또한 부화(浮華)한 것을 숭상하고 있으니 개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²⁾

南坤은 “알맹이 없는 고담(高談)” (高談無實)만 늘어놓는 풍조를 비판하면서 “이제 사습(士習)을 바꾸고 문체를 고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科擧)를 통해서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옛적에 구양수(歐陽脩)도 과거로 문체를 고쳤었습니다.” (但今欲正士習, 變文體, 莫如科擧. 昔歐陽修亦以科擧變文體.)³³⁾고 하였다. 이는 문체개혁을 하는 데는 科擧만한 것이 없으며 구양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표본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례이다.

英祖祖 대사간 홍검(洪檢)이 당시의 문사들이 상도(常道)와는 거리가 먼 신기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짓는 풍조를 개탄하면서 과거시험시 國子長에게 문체가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는 글을 쓰는 자를 낙방시켜 문풍을 쇠

31) 주 30과 동일.

32) 《燕山君日記》 39권, 6년 11월 30일 2번째 기사: “宋朝儒士, 效西峴體, 文詞險僻, (歐陽脩)[歐陽修]知貢舉, 極力排之, 宋朝文章典實, 今之文體, 亦尙浮華, 不可不變易也.”

33) 《中宗實錄》 38권, 15년 1월 17일 2번째 기사.

신할 것을 아되면서 구양수가 嘉祐 2년 知貢擧로서 서곤체를 물리치고 고문을 쓰는 응시자를 합격시킴으로써 문체를 일변시킨 일을 송대에 인재가 융성했던 원인과 관련시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근년 이래로 선비가 글을 읽지 아니하고 오로지 첩경(捷徑)만 생각하여 문체(文體)는 신기(新奇)한 것을 숭상하여 상도(常道)를 버리고, 서법(書法)은 궤괴(詭怪)함에 힘써서 못 사람의 눈을 현혹하니, 마음속으로 개탄스러움이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예전 송(宋)나라 신하 구양수(歐陽脩)는 지공거(知貢擧)가 되면서 서곤체(西崑體)를 배척하고 고문(古文)을 취하여 선비의 추향(趨向)을 일변(一變)하였으니, 가우(嘉祐) 때 인재의 성(盛)함이 지금까지 칭송됩니다. 대저 시문(時文)의 성쇠(盛衰)는 세도(世道)의 쇠퇴와 융성에 관계가 있으니 국자장(國子長)에게 신칙하여 문체가 부화(浮華)하고 실상이 없는 것은 낮추어 내치고, 필법이 험벽(險僻)하여 눈을 놀라게 하는 것을 물리쳐서, 사습(士習)을 만회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³⁴⁾

또한 正祖는 대제학 김종수(金鍾秀)가 문임(文任)을 굳게 사양하자 구양수와 같은 인재가 나와 쇠미한 문풍을 바로잡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재차 김종수를 설득하자 김종수는 끝내 명을 받든다.

말세에 문풍(文風)이 위미(委靡)(3120) 하니 사마단명(司馬端明)과 구양문충(歐陽文忠)같은 사람을 어디서 구하여 오겠는가? 중신(重臣)은 본디 홍장(鴻匠)으로 성예(聲譽)가 일찍부터 드러났는데도 무뚝뚝하게 고집만 부리고 융통성 없이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의(意義)란 말인가?³⁵⁾

34) 《英祖實錄》 121권, 49년 9월 25일 2번째 기사: “近年以來, 士不讀書, 專事捷徑, 文體則尙新奇而棄常道, 書法則務詭怪而眩衆眼, 竊不勝慨然之至. 昔宋臣(歐陽脩)[歐陽修]爲知貢擧, 斥西崑體取古文, 而士趨一變, 嘉祐人才之盛, 至今稱之. 蓋時文之盛衰, 有關於世道之汚隆, 申飭國子長, 文體之浮華無實者, 降黜之, 筆法之險僻駭眼者, 斥去之, 以爲挽回士習之地宜矣.”

35) 《中宗實錄》 13권, 6년 2월 28일 2번째 기사: “而叔季文風委靡, 如司馬端明、歐陽文忠何處得來? 重臣自是鴻匠, 聲譽夙著, 硬作木強之株守, 抑何意義?”

누차 사양하는 신하를 설득하기 위해 문체 개혁을 주도한 구양수 같은 인물을 고대하는 군왕, 자신의 역할이 이러한 구양수에 비견되자 명을 받드는 신하,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구양수는 문체 개혁에 있어 누구도 비견될 수 없는 절대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조는 또 “문화(文化)를 일으키고자 해도 구양수(歐陽脩)의 공정한 안목을 어디에서 얻어 오겠으며”(欲振文化則歐陽之公眼, 何處得來)라고 하면서 구양수와 같이 문화를 부흥할 수 있는 해안을 지닌 인물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토로하는 기록도 보인다.

2. 산문 작품에 대한 평가

1) 총체적 평가

구양수의 산문에 대한 평론은 크게는 대체로 작품 전체에 대한 총체적 평가,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 표현기교와 예술적 특징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다.

구양수 산문은 감정이 직서적으로 표현되기보다 내면적 조절을 통해 절제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로써 그의 산문은 탈세속적이면서 힘 있는 飄逸함을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해 農岩 金昌協은 韓愈의 산문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한유의 산문은 격(格)이 바르고 힘이 있고, 구양수의 산문은 조(調)가 통일하고 틀이 등글다.³⁶⁾

즉, 한유의 산문이 힘 있고 직서적인데 반해 구양수의 산문은 분위기가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롭고 飄逸하면서 감정이나 표현이 거칠고 극단적이지 않아 부드러우면서 느슨한 특징을 지니는 점을 간파해 낸 정확한 평론

36) <雜識>外篇, 金昌協, 《農岩集》 卷34: “韓格正而力大, 歐調逸而機圓.”

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또 한유의 산문은 독자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들게 한다고 하여 직접적인 표현이 많고 감정적인 색채가 적으며 심지어 선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면도 있다고 한 반면, 구양수의 산문은 길게 탄식하여 읽는 이를 심취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유의 문장은 북에 맞추어 춤추는 것 같아 읽으면 정신이 번쩍들게 하고, 구양수의 문장은 길게 탄식하는 것 같으니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한다.³⁷⁾

이는 감정적 색채가 짙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탄식의 형태로 표출한 구양수 산문의 한 측면을 정확하게 짚어낸 평가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또 구양수 산문의 전통 계승 문제를 언급하면서 《離騷》와 《史記》의 요지를 터득하였고 평가하였다.

한유는 《尙書》와 《左傳》의 작법을 바탕으로 삼았고, 구양수는 《離騷》와 《史記》의 要旨를 터득하였다.³⁸⁾

<國風>과 《離騷》의 맛으로 문장을 짓는 이는 오직 구공만이 그럴 뿐이다. 어떤 이가 “<豐樂亭記>와 <峴山亭記> 같은 작품들이 그런 것인가?”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가깝다. 그러나 이 작품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도 대저 모두 그러하다. 반복 영탄하는 곳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이다” 하였다.³⁹⁾

이는 구양수 산문이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감정표현의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국풍과 이소에서 바탕하고, 서사기법 면에서 사기를 계승한 면에 대한 평론으로 구양수 산문의 계승관계를 잘 파악하였다 하겠다.

37) 金昌協, 위의 글: “韓文鼓舞, 讀之使人氣作, 歐文詠歎, 讀之使人心醉.”

38) 金昌協, 위의 글: “韓本尙書左氏之法, 歐得風騷太史之旨.”

39) 金昌協, 위의 글: “以國風離騷之旨爲文章, 唯歐公爲然. 或曰如豐樂亭峴山亭記之類是是否? 曰近之然不獨此也. 他文大抵皆然, 觀其反復詠歎處即是.”

洪夷周는 “평이하여 아무런 힘이 들지 않았다”⁴⁰⁾고 읽은 소감을 피력하고 있는데, 역대 중국의 역대 고문가들이 줄곧 구양수 산문이 평의하고 자연스럽다고 지적한 평어와 일맥상통하는 평가이다. 그는 또 구양수 산문의 심미적 특징에 대해 추상적으로 평하였는데, 상당히 주목을 끄는 평론이다.

구양수의 글은 아름다운 비파같이 품격있는 거문고 소리 같이 은근하게 떠오른다.⁴¹⁾

구양수의 산문이平易하다는 평가가 자칫 격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지만, 실은 상용자나 쉬운 글자로 또는 虛字를 다용한 데서 기인한 것이지 내용이나 표현기교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홍석주의 평가는 구양수 산문의 내적 심미가치를 체득해낸 것으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徐應淳은 구양수 산문의 변화가 많으나 안정된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평하여 “곡절하면서 둔후하다.”⁴²⁾고 하였고, 韓章錫(1832~1894)구양수 산문의 특징을 개괄하여 “힘 있고 아름다우며 평이하고 완곡하다.”⁴³⁾하였는데, 이 또한 구양수 산문의 대표적 특징을 잘 파악한 평론이라 할 수 있다. 鄭弘溟의 《畸翁漫筆》에는 구양수의 문장이 한유의 문장보다 낫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 구양수가 한가지 체만을 사용하여 문장이 자연스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 한유 산문의 千變萬化하는 특징보다 훨씬 앞선다고 대답한 崔嵬의 평을 싣고 있는데, 이는 구양수 문장의 平易自然한 특징에 주목한 평가라 할 수 있다.⁴⁴⁾

40) <答李審夫書>, 洪夷周, 《淵泉全書》卷2: “嘗讀廬陵之文, 平易紆衍, 絕不費力.”

41) <題四家文鈔>, 洪夷周, 《淵泉全書》卷3: “廬陵之文, 悠揚如雅瑟.”

42) <論文與李近章>, 徐應淳, 《網堂書》卷2: “紆徐敦厚.”

43) <讀昌黎>, 韓章錫 《眉山集》卷10: “以適麗平婉勝.”

44) 《畸翁漫筆》: “少時, 謁尹月汀門下, 適值初度設酌, 崔東翱占首席. 月汀問: ‘聞令公以歐文勝於昌黎, 信否?’ 東翱曰: ‘固然, 韓之千變萬化, 不及歐公專用’

한편, 成宗은 구양수 산문을 仁義禮樂의 주장을 밝힌 글⁴⁵⁾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면을 부각시킨 통치자다운 평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김평묵은 “구양수의 문장이 道體에 있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한 까닭에 그 작문을 인하여 천하의 도리를 발명한 것이 한 둘이 아니었고, 그 조정에 서서 세상에 행한 大節이 이따금 백세에 우뚝하여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⁴⁶⁾”고 하여 구양수의 산문이 道學적 측면에서 볼 때 다소의 결함이 있지만, 문학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개별 작품에 대한 평가

구양수 산문에 대한 총체적 평론뿐 만 아니라 개별 작품에 대해서도 평론을 가하고 있는데, 주로 평론 대상이 되는 작품으로는 <朋黨論> · <上範司諫書> · <秋聲賦> · <醉翁亭記> 등이 있다.

<붕당론>은 구양수가 38세때(1044) 작품이다. 당시 範仲淹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세력과 呂夷簡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수파 세력은 그 전까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던 “朋黨”이라는 말로 구양수가 속한 개혁파를 궁지에 몰아세웠다. 이에 개혁파의 일원으로 諫官이던 구양수는 <붕당론> 써서 “도를 같이하는”(同道) 군자의 붕당과 “이익을 같이하는”(同利) 것으로 이합집산하는 소인의 붕당은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적시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심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군자들의 붕당을 등용하여야 함을 피력하였다. 구양수의 붕당에 대한 견해는 朝鮮士大夫들의 붕당 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⁴⁷⁾

一體爲自然.’

45) 《成宗實錄》 289권, 25년 4월 12일 1번째 기사.

46) <答徐汝心>, 《重菴集》 11권: “韓歐諸公, 雖於道體有所欠闕, 然以其資稟之美故, 因其作文而往往發明天下之義理者, 蓋亦非一二矣, 其立朝行世之大節, 往往有聳動百世而不可沒者矣.”

47)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

성종조 임광재는 부친인 임사홍의 역울함을 호소하는 글에서 구양수가 봉당론을 지어 올려 자신을 변론한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고, 한때의 봉당으로 내몰리지 않고 천년동안 역사에 이름을 남길수 있었다고 하여 <봉당론>의 내용과 논지가 지극히 타당하였음을 내비추고 있다.⁴⁸⁾

이이(李珣)는 상소문에서 구양수의 <봉당론>이 봉당을 논한 문장 가운데 가장 잘된 글이라고 평하고는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고 극찬하였다.⁴⁹⁾ 또한 당파싸움이 극심하던 英祖조에 승정원에서 <봉당론>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을 하는 글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확을 그어 분별해낸 글이라고 평가하면서 임금에게 儒臣으로 하여금 읽게 하여 들어 보도록 권유한 기록도 있다.⁵⁰⁾

구양수의 <봉당론>이 군자를 등용하고 소인을 물리친 결과가 어떠한 지에 대해 명확하게 피력되어 있음에도 구양수의 견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송왕조가 망국의 화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봉당론>을 한 왕조의 망국을 막을 수도 있었던 문장이라고 커다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구양수(歐陽修)도 봉당론(朋黨論)을 써서 군자·소인을 진퇴시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 개진을 하였으나 그 말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송이 끝내 망국의 화를 일으킨 씨앗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⁵¹⁾

<봉당론>의 논지에 대해 찬동하는 평론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조 송인명(宋寅明)은 구양수의 봉당에 대한 논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

討》, 1992.

48) 《成宗實錄》 221권, 19년 10월 19일 5번째 기사.

49) 《修訂宣祖實錄》 6권, 5년 7월 1일 3번째 기사.

50) 《英祖實錄》 2권, 1년 11월 2일 4번째 기사.

51) 《仁祖實錄》 20권, 7년 윤4월 12일(정묘) 2번째 기사: “(歐陽脩)[歐陽修]亦著《朋黨論》, 備陳君子小人進退之幾, 而言不見施, 宋之卒基亡國之禍者, 以此也.”

식이 <봉당론>을 지었다고 전제하고, 군자라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잘못을 범하면 군자라도 내쳐야하고 소인에게도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소인의 말 가운데에도 일리가 있는 견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획일적으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여 군자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구양수의 군자만을 등용해야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영조조 시독관 조현명(趙顯命)도 구양수가 <봉당론>에서 “군자는 군자의 당이 있고, 소인은 소인의 당이 있다.”⁵²⁾고 한 데 대해 당파가 나뉜 지 5, 6대에 이르렀으니 군자의 자손에게 소인이 있을 수도 있고, 소인의 자손에 군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는 평소에 행한 일을 근거로 어진이는 등용하고 불초한 자는 내쳐야 한다고 하였다.⁵³⁾ 이는 구양수가 군자의 봉당을 등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군자의 봉당에도 소인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봉당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을 한꺼번에 전원 등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론을 편 것이다.

<上範司諫書>에 대한 평 또한 적지 않는데, 이 글은 구양수가 明道 2년(1033)에 당시 右司諫이던 範仲淹에게 쓴 편지글로 그의 초창기 작품이다. 이 글에서 구양수는 諫官의 중요성을 논술하면서 범중엄이 간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송왕조의 폐단을 개혁하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간관의 역할과 자세 대해 역설할 경우에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이조에서 臺諫을 考功(考功)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청하면서 인군과 신하가 감히 다투듯 할 수 있는 직책이 간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양수 <上範司諫書>의 ‘대궐의 섬돌 아래에 서서 인군과 시비를 다투는 사람은 간관(諫官)이다.’고 한데서 찾고 있다.⁵⁴⁾ 또한 사간원의 아전인 조양(趙陽)과 임양발(林陽發)이 숙직하다가 공무로 의막(依幕)에 나가다가 巡官에게 잡히어 갈히는 일이 발생하자 사간원에서 사간원의 아전은 군왕의 수족이나

52) 《英祖實錄》 15권 4년 2월 19일 3번째 기사.

53) 《英祖實錄》 15권 4년 2월 19일 3번째 기사.

54) 《太宗實錄》 30권, 15년 8월 14일(무인) 3번째 기사.

마찬가지며, 더구나 공무로 다니다가 법을 범한 것이니 용서하여 줄 것을 간청하는상소에 “송(宋)나라 선비 구양수(歐陽修)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옳다 하면, 간관(諫官)은 그르다 하고, 천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된다 하면, 간관은 반드시 행할 수 없다 하여, 대궐 뜰 사이에 서서 천자와 시비(是非)를 다투는 것은 간관’이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여 태종을 설득하고자 하였다.⁵⁵⁾ 자칫 군왕으로서는 심히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는 언사를 쏟으면서 군왕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구양수의 <上範司諫書>이니 이에 대한 암묵적으로 공인된 평가가 지극히 높지 않고서는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英祖는 도승지(都承旨) 조명리(趙明履)에게 명하여 구양수(歐陽脩)12941의 <秋聲賦>와 <醉翁亭記> 읽게 한 다음 “이 글은 다 절작(絶作)이거니와, 이것은 이른바 글 가운데의 그림이라는 것이다마는, 그러나 종내에는 말세의 글이다.”라고 하여 예술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내렸지만, 통치적 입장에서는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그후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며 <<秋聲賦>>의 “머리를 숙이고 잠자는 동자(童子)’를 어찌 죽히 이르겠는가? 아! 구양자도 이르기를 ‘벌레 소리가 즉즉(唧唧)하여 나의 탄식을 돕는 듯하다.”⁵⁶⁾(咫尺窗外, 內豎皆睡。歐陽子垂頭睡之童子, 何足道哉! 噫! 歐陽子亦謂唧唧, 如助予之嘆息.)는 부분을 끌어와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양수 산문에 대한 평가가 문학예술적 가치와 효용적 가치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표현기교와 예술적 특징에 대한 평가

구양수 산문에 대한 표현기교와 예술적 특징에 대해 평하고 있는 평론도 우리나라 구양수 산문의 평론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55) 《太宗實錄》 5권, 3년 2월 30일(정축) 3번째 기사.

56) 《英祖實錄》 80권, 29년 10월 9일(경인) 2번째 기사.

라에서 구양수 산문의 예술적 특징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비지문⁵⁷⁾을 대상으로 하였고, 집중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 졌다. 시기적으로는 조선 중기 이후 인데, 이는 조선 중기 이전에는 비지와 관련한 논의가 그렇게 활기를 띠지 않았지만⁵⁸⁾ 중기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의와 창작이 본격화 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구양수의 비지문에 대해 집중적이고 일관성을 지닌 평론을 한 인물은 조선 중기 대표적 고문가 농암 金昌協인데, 그가 구양수의 비지문에 대해 그러한 평론을 한 것은 구양수의 비지문을 비지문 창작의 전범으로 하고, 이를 통해 문학적 특징을 찾고자 시도한 데서 기인한다.

김창협은 비지문이 대체로 청탁을 받아쓰는 글인 만큼 망자의 드러낼만한 생전의 행적을 일일이 나열하다보면 자칫 번잡해질 수도 있지만, 구양수의 비지문은 망자의 사적 중 기록해야 할 중요한 사적만 선택하여 기술함으로써 간략하지만 집중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쓰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지금 구양수의 여러 비지문을 읽어보니, 핵심이 되는 사실을 잡아끌고, 이음새 되는 부분일 이리저리 쉼여 있지만, 종종 법칙이 있어, 간략하면서 풍부하며, 상세하되 번잡하지 않다. 의도는 한가하지만 정황과 사건의 묘사는 곡진하여 표일한 느낌이 나타나 보이는 곳은 또 앙앙 그림과 같은데, 모록문이 “태사공의 진수를 얻었다”고 여긴 것이 바로 이것이다.⁵⁹⁾

그는 이러한 기법은 司馬遷의 서사기법의 진수를 터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茅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57) 구양수의 비지문은 모두 114편으로 《居士集》에 99편이 수록되어 있고, 《居士外集》에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58) 李鍾虎, <조선조 고문론과 碑誌類 散文>, 《한국고문의 이론과 전개》, 金都鍊 編, 태학사, 1998, 186쪽 참조.

59) 金昌協, 앞의 글: “今讀歐公諸碑志,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不繁. 意度閑暇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又往往如畫, 茅鹿門以爲得太史公之髓者此也.”

김창협은 明代 문장가들과 古人들의 “簡略함”(簡)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구양수의 비지문 <太衛文正公王公神道碑銘>와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範公神道碑銘>을 예로 들어 그 특징에 대해 평하고 있다.

고인의 간략함은 문장의 구성에서 간략한 것이고, 명대 사람들의 간략함은 글자와 문구에서 간략한 것이다. 고인의 상세함은 큰 틀에서 상세한 것이고, 명대 사람들의 상세함은 조그마한 일에서 상세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양수가 왕단과 범중엄 두 문정공의 신도비문을 지을 때 그 문장이 2천자도 안되었지만, 그들이 재상이 되었을 때의 일한 자취와 평생의 큼지막한 일들을 거의 다 묘사해 내었다.⁶⁰⁾

구양수의 비지문은 자구의 간략함을 추구하고, 조그마한 일을 상세하게 서술하는 명대 문사들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재상을 지낸 인물인 만큼 쓸 만한 소재도 적지 않았을 터이지만, 2천자가 넘지 않는 분량으로 압축하여 서술하였음에도 평생의 大節이나 사업을 남김없이 묘사해낸 것은 대표적인 행적을 포착하여 상세하게 묘사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한 것이다.

농암은 또 구양수가 사마천의 서사기법을 계승하였지만,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고 비지문의 성격에 맞게 발전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비지문과 사전문은 문체가 대략 같다. 그러나 사전문은 상세하고 풍부함을 위주로 하고, 비지문은 하나같이 간략하고 근엄함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한유 비지문의 서사는 《사기》·《한서》와 크게 다르다. 단지 문장만 본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체제가 원래 당연히 그런 것이다. 구양수가 비록 사마천 글을 배웠지만 비지문을 지을 때는 오히려 사전의 문체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하다.⁶¹⁾

60) 金昌協, 앞의 글: “古人之簡, 簡於篇法, 明人之簡, 簡於句字. 古人之詳詳於大體, 明人之詳詳於小事, 故歐陽公作王範二文正碑, 其文不滿二千言, 而其作相事業與平生大節, 摸寫殆盡.”

61) 金昌協, 앞의 글: “碑誌與史傳, 文體略同. 而史傳猶以該瞻爲主, 碑志則一主於

史傳의 경우는 상세하고 풍부한 것이 편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비지문의 경우는 비석이나 돌에 새기기 때문에 분량의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해진 편폭에다 평생의 사적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문장을 쓰자면 기록하여야 할 내용의 취사선택에서부터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할 부분과 간략하게 기록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장 구성 및 내용의 배치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은 망자의 행적 가운데 드러낼만한 일이든 숨기면 좋은 일이든 간에 모두 드러내어야 하나, 비지의 경우는 청탁을 받아쓰게 되는 글인 만큼 칭송될만한 일만 가려서 기록한다는 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농암은 구양수가 사전과 비지의 문체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서 사마천의 사전 가운데 비지에 응용할 만한 부분을 골라 사용하고, 이에 비지문의 특징인 간엄함을 적절히 조화시켜 독특한 풍격의 비지문을 쓴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암은 구양수 비지문의 간엄함에 대해 범중엄이 송대 최고의 인물인데도 구양수가 신도비를 지으면서 출처와 사업, 시종의 대절만을 서술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고 의전과 맥주의 일을 생략한 실례를 들어 비지문의 비지문 창작에 있어 “簡嚴”의 전범으로 내보이고 있다.⁶²⁾

농암은 구양수의 비문을 錯綜하다고 하고, 言辭가 아순하되 그 기이함은 편장의 변화에 있다고 하여 전아하고 순화된 언어표현과 사건의 기술에 있어 주제에 근거하여 뒤섞는 방법을 통해 편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양수가 서사에 있어 속사비사법을 사용하였다고 적시하고는 <太衛文正公王公神道碑銘>을 서사를 실례로 들어 내보이고 있다.

簡嚴，故韓碑敘事與史漢大不同。不獨文章自別，亦其體當然也。歐陽公雖學司馬遷，而其爲碑志，猶不盡用史傳體，亦以此耳。”

62) 金昌協, 앞의 글: “範文正公宋朝第一人物也。其平生行事，可爲後世法者極多，而歐陽公作神道碑，只敘其出處事業終始大節，而其餘嘉言善行，皆略之。如義田及麥舟事，尤古人所難能，而碑猶不載也。其敘事簡嚴，不苟如此矣。”

송대의 문장으로 구양수 같은 이의 글은 비록 평이하고 부드럽고 느슨한 듯하지만, 그의 봉사와 주치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낫낫이 지적하고, 일의 정황을 꿰뚫히게 그리듯 서술한 것이 완곡하고 깊이 있고 절실하여 뼈를 찌르고 골수에 사무친다. 이것이 임금이 듣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문, 기문, 비지문, 제문 등은 느낌이 시원하고 아름답고, 음조는 떠도 듯 자유로우며, 상반되는 상황을 서술하여 울리고 내리면서 감개하고, 일창삼탄하면서는 왕왕 한숨을 쉬다 숨이 끊어지려 하는 곳이 있다.⁶³⁾

구양수 산문이 평이하면서 완곡하고, 서사에 있어 변화가 많고 생동감이 있으며, 감정적 색채가 농후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한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구양수 산문은 감정이입이 강하여 奏議文도 감정을 이입하여 창작함으로써 군왕이 감동할 수밖에 없고, 序와 記에도 감정이 깊이 투여되어 있어 감개하는 부분에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바짝 긴장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구양수 산문이 우수한 문학작품으로 인정받는 핵심적 요소를 파악하여 평가한 사례로 높은 가치를 지니는 평론이라 할 수 있겠다.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서술하지 않고 주제별로 서술함으로써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서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IV. 結 論

구양수의 역사저작과 문학작품 散文, 詩, 詞가 이미 고려 중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문인들에게 폭넓게 읽혀져 읽혀졌다. 또한 종종 25년에는 《居士集》 50권이 간행되었고, 《歐蘇手簡》, 《歐文抄》 및 구

63) 金昌協, 앞의 글: “宋文如歐公, 雖若寬平和緩, 而其封事奏劄, 指陳利害, 摸寫事情, 委曲深切刺骨透髓. 令人主聽之, 不得不動心開悟. 其序記碑志祭文等文, 風神道麗, 音調逸宕, 俯仰感慨, 一唱三歎往往有歎歎欲絕處.”

양수 산문이 포함된 選集本이 여러 차례 간행되어 폭넓게 읽혀짐으로써 구양수 산문에 대한 애호와 평론이 다량 출현하게 하였다.

구양수가 창도한 고문운동은 조선시대 지배층들에게 문체 개혁의 중요한 典範으로 평가되어, 浮華한 문체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 될 때마다 중요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구양수의 산문은 총체적으로 平易하고 자연스러우며 飄逸한 미적 감각을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문학적 측면에서는 높은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었지만, 도학적 측면에서는 道體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朋黨論> · <上範司諫書> · <秋聲賦> · <醉翁亭記> 등은 모두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朋黨論> · <上範司諫書> 《朝鮮王朝實錄》에서 君臣간의 문서나 대화에 여러 차례 인용되어 朋黨과 諫官에 대한 지극히 타당한 이론으로 평가되었다.

구양수 산문의 표현기교와 예술적 특징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碑誌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 사건 기록에 대해 大節만을 취사선택하여 상세하면서도 簡嚴하게 서술함으로써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감정이입이 농후한 특징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參考文獻>

- 歐陽修, 《歐陽修全集》, 中國書店, 1986(제1판).
 金富軾, 《三國史記》(影印本), 景仁文化史, 1972.
 金昌協, 《農岩集》(韓國文集總刊), 民族文化推進黨, 1997.
 洪奭周, 《淵泉全書》, 宇晟社, 1984.
 《朝鮮王朝實錄》, <http://sillok.history.go.kr>
 鄭瑨, 《朝鮮後期古文論研究》, 亞細亞文化社, 1989.
 金台俊 著, 金性彥 校註, 《校註朝鮮漢文學史》, 太學社, 1994년(초판).

- 《域外漢籍研究輯刊》，第一輯，中華書局，2005。
(日)島田翰，《漢籍善本考》，北京圖書館出版社，2003년(제1판).
윤병태, 《朝鮮後期 活字와 冊》, 범우사, 1991.
黃一權, 《歐陽修散文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金鍾門, 《韓國古印刷技術史》, 探究堂, 1974.
김학주, 《조선시대 간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車鎔柱, 《韓國漢文學史》, 景仁文化史, 1995(초판).
김춘란, 《歐陽修 산문의 한국 전래와 수용》,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1992).
강명관, 《농암잡지평석》, 소명출판, 2007.
李鍾虎, <조선조 고문론과 碑誌類 散文>, (《한국고문의 이론과 전개》, 金都鍊 編, 태학사, 1998).

<中文提要>

歐陽修的著作早在高麗朝中期以前傳入韓國之後，眾多的文人學士閱讀且對此做評論。朝鮮中宗25年引出了《居士集》50卷，《歐蘇手簡》、《歐文抄》及包括歐文的選本多次被刊行，為歐文給廣泛讀者做評論打下良好的基礎。

歐陽修倡導的古文運動在朝鮮時期改革文弊時被評為文體改革的典範。韓國對歐文的總體評論，認為歐文具有平易自然、飄逸的文學藝術特點，但從道學家而言，歐文欠缺一些道體。〈朋黨論〉、〈上範司諫書〉、〈秋聲賦〉、〈醉翁亭記〉等文皆被評為優秀作品，其中〈朋黨論〉、〈上範司諫書〉等文多次在《朝鮮王朝實錄》中被引用。

韓國對歐文的表現技巧和藝術特點的評價主要以他的碑志文為主，認為注重敘事，本文從構思、敘事章法、行文特色、選材、措辭等方面取得了卓越

的成就，具有很高的文學價值，其濃厚的感情色彩令讀者感動。

주제어 : 歐陽修, 散文, 評價, 朝鮮時期, 碑志文, 藝術特點